



배사지를 찾아서

###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양양 진전사터



## 한국불교변혁 진원지

# 禪宗의 텃밭



진전사터는 지금 한창 발굴중이다.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예사들과 인부들이 논내린 진전사터에 금줄을 치고 돌맹이들을 하나하나 두드리 깨우고 있다.



도외선사 부도(보물 439호). 9세기 중반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이다.

『잊혀진가람탐험』세 번째의 여행으로 동해의 북단, 양양(襄陽) 진전사(鎭田寺)터를 찾아간다. 아직 시질이 수상하여 북녘의 수많은 배사지를 가운데 겨우, 석왕사, 신계사 터만을 순례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군사분계선 아래, 외설악 초입의 진전사터로 옮긴다. 눈 덮인 산하, 때론 굴바람 속에 겨울잠을 자듯 잔뜩 웅크린 배사지를 찾는 것은 자못 운치가 있다.

아예 속세와는 경계를 그으려하는 듯 솔바람소리가 파도처럼 달음쳐와 순례객을 산문 밖으로 밀어내고, 산비탈에 기대선 겨울 나무들은 평평한 육상(陸上)을 내뿜으며 온몸을 부르르 떠는 데, 무슨 꿈이 그리 깊은지 배사지들은 몇 채씩 두터운 눈 이불을 깔아다 덮은 채 인기척이 요란해도 거동을 않는 것이다.

### 사리탑 부도시대 열어

속초에서 몇 번인가 해안선을 따라 오르내리다가 가까스로 오색 악수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설산(雪山)으로 접근하자 개동지배기 때들이 요란스레 웃는다. 붉은 열매를 쪼다 말고, 눈 묻은 가지를 털며 비상하는 것이 영락없이 심산유곡, 설악의 주인네를 닮다. 진전사는 거기 날랜 개동지배기 죽지 아래, 문전리(文田里) 깊은 적막 속에 폐선처럼 정박해 있었다.

갯바람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석탑 하나만 깃대처럼 반짝이고, 옛주인의 뱃노래도, 배격이던 노젓는 소리도 얼음장 밑에 숨겨져 흐르는 채, 어느 먼 바다를 떠돌다 왔는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산사태로 파손된 지 4~5백년이나 지난 것 같은 진전사의 사정은 딱하기 이렇다 없다. 어떤 역경에도 신라 왕권불교의 '반역자' 도외선사(道外善義禪師) 성물년 미상부도만은 제대로 간수하러는 듯 산등성이 숲속에 숨겨 놓고 미처 파하지 못한 금당과 그 부속 건물들은 망가진 형태대로 제국 여기저기 힘부르 날부러져 있다. 어찌자고 통일신라의 위대한 지성, 도외선사(道外善義禪師)는 조국 서라벌을 등지고 예까지 무거운 이 진리의 텃밭 한 획을 그은 것일까.

강원도에서는 산도 물도 바다를 향하여

흐른다. 연안인양 사이좋게 팔장을 끼고 흘러가면서 지부한 듯 노송 몇 그루를 다문다 문 세워놓고, 또 그 그늘마다 민가 몇 채씩을 지어놓고 옛이야기들을 지들대게 하는 것이다.

도외선사가 35년 간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서라벌로 돌아와 왕권불교로 전도된 신라불교의 혁신을 외치다 '파괴의 말(魔語)'이라는 백척을 받고,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함을 알고 '는 이곳 설악산 자락에 들어 온 문을 시작한 것은 서기 821년(현덕왕 13) 경의 일이었다. 도외선사가 서라벌을 떠나온

때 진리의 텃밭'에 살고 온 것은 남종선(南宗禪)의 법맥인 마조도일의 선법(禪法)이었다. 왕즉불(王即佛), 왕은 곧 부처이며, 귀족은 보살이고, 백성은 중생이라는 불교의 세계관을 절묘하게 봉건체제의 위계질서로 일치시킨 신라불교는 더 이상 민중과 역사를 이끌고 나갈 법력을 상실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흐르는 것이 멈췄을 때, 역사의 선지식들은 몸서리를 치며 그 막힌 물길을 새롭게 풀기 위해 삼과 곡평이를 들고 길을 나서서 것이다. 대당 유학승으로 6대조 혜능과 8대조인 마조도일의 법맥을 이은 서당 지장으로부터 홍주종(洪州宗)의 불법을 전수한 도외선사가 그려왔던 것이다. '왕즉불(王即佛)'이 아닌 '자심즉불(自心即佛)'

을 외치며, 인간의 본연 평등과 존엄성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고뇌하다가 기독교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불온세력으로 몰리자, 달마가 양무제 군대에 쫓겨 동쪽으로 갔듯이 그도 또한 동해의 동쪽에서 북산의 북쪽'으로 산도 물로 흐르는 동해의 인연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전사는 이렇듯 외롭고 의로운 선지식 하나가 반도 땅에 흐르는 정법의 수맥(水脈)을 바로 짚어 한국불교의 지평을 새롭게 연 변혁의 발상지이다. 삼과 곡평이로 갈로

심, 오직 이 나라가 정토되기만을 기원했을 도외선사의 후신(後身)인듯 보인다. 세월의 전변함인가, 보호대로 둘러친 현혹도 모자라 이제는 송전탑이 시야를 가리니 삼총석탑도 탑신의 화불들도 시력을 잃은 듯 아무리 눈을 맞추려해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

저수지 옆 산비탈에는 이제 막 발굴을 시작한 진전사지가 처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학예사들과 이나와 인부들과 함께 거미줄같이 금줄을 치고 언 땅이며, 부서부석한 돌맹이들을

## 도의선사 '혁신' 피하다 이곳 은둔 폐허엔 부도·석탑만... 발굴 진행중

의 샘을 일구어 신선한 사상의 물길을 대고 구원의 짙은 한때기 선종(禪宗)의 텃밭(田)인 것이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발을 가로질러 얼어붙은 산문을 밟고 안으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경배해야 할 것은 잡석 계단 위에 벗꽃나무 호위를 받으며 오롯이 서있는 3층 석탑이다. 진전사의 3층석탑(국보 제122호)은 9세기 초 하대 신라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을 모델로 한 아담하고 단정하기 이렇다 없는 것이다. 키도 석가탑보다는 현격히 작아졌으며 석가탑에는 없는 화불(佛)들이 기단의 사방과 탑신의 물레에 돌을 새겨져 있어 친근감을 더해준다. 천년도 더 넓게 밟아 지러도록 그 자리에 서서 동해의 일출을 굽어보며, 일구워

두드리 깨우고 있었다. 사지 한가운데는 당간지주인양 늙은 오리나무 고목이 팔다리를 다 잘린채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오기가 대단해 보인다. 진전사지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인부들이 아무리 달래고 다그쳐 물어도 한번 입 다른 돌맹이들이며, 오리나무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다.

중국에는 달마가 있고, 해동에는 도의가 있었다고 할만큼 후세의 추앙을 받은 도외선사도 어쩌면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따돌림받는 외로운 존재였을 것이다. 따돌림을 받았으면 어쩌랴. 물 깊고 골 깊은 설악의 골짜기에 들어서 개동지배기처럼 역사의 시공을 펼칠 날고 있으니 역사는 결국 진보의 편에 서는 것이다.



진전사터에 서있는 삼총석탑(국보 제122호). 기단의 사면과 탑신에 비천상과 팔부산중, 사방불을 돌출새김으로 조각한 신라시대 대표적 석탑이다.

도의선사의 사상은 그의 제자 염거화상(廉居和尚 ?-844)에게 전해졌고, 염거화상의 가르침은 다시 손자될 되는 보조체종(普照體宗 804-880)에게 전해져 장흥 가지산에 보림사(寶林寺)를 세우고 그 법을 전파하니 이 법이 곧 하대신라의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제일문인 가지산파의 내력인 것이다.

### 일연스님 이곳서 수행

도의선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신라의 귀족이 아니라 지방의 호족이었다. 왕족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 중앙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호족에게 도의의 주장은 구원의 사상이었기에, 호족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약되어 그들은 알다 부위 지방에 선종 사찰을 세우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는 곧

호족 중의 한사람인 왕건의 승리로 귀착되어, 한국불교는 결국 선종 중심이라는 확실한 중흥을 진작시키게 되었으니 그 모든 변혁의 출발점이 여기 진전사에서 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발굴이 진행중인 진전사 터 왼쪽 능선에는 도외선사 사리탑으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부도 하나가 기부자를 불고 있다. 방형대부터가 석탑의 기단부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 연꽃받침대를 낀 어느 부도와는 달라 범상치를 알아 보인다. 이 부도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로 주목받는 바로 그것

이다. 화엄에서는 고승의 죽음 또한 그저 죽음이기에 원호, 의상, 진표, 자장 등 신라의 어느 고승도 부도를 남기지 않았으나, 한국 선종의 제1조인 도외선사에 이르러 부도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도의선사 이후, 진전사에는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 1206-1289) 스님이 14세 때 머리를 깎고 수도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어떤 스님이 계셨는지 전혀 전하는 데가 없다. 지금은 저수지로 계곡의 물을 가득 담아 죄 없고 어린 이 땅의 선민(善民)들에게 물길을 대는 여귀소(女鬼沼)에는 절이 폐사될 때 스님들이 수장(水藏)하고 떠났다는 범종과 불상들이 지금도 수중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는지 슬픈 전설만이 먼 바다로 흘러든다.

<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설악산 미천굴 선원원전 편



## 19,000명의 일터차 신입사원

포스코의 1년차 신입사원은 19,000명입니다. 77년 입사한 오병진 부장도 갓 입사한 김지혜씨도 포스코에서는 모두가 입사동기입니다. 그 이유는 32년간 세계 철강산업을 이끌어온 포스코가 민영 기업이 된지 1년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민영 포스코 19,000명의 입사동기가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지난 32년간 쌓아온 포스코의 명성을 민영 포스코로 이어가겠습니다.



소라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